

바람개비 물결 속 낭만 '만끽'



올해 추석 명절은 닷새간 이어지는 긴 연휴다.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을의 문턱, 오랜만에 갖게 된 긴 휴식에 시민들은 부푼 마음으로 명절을 맞는다. 따사로운 햇살을 조용하게 즐길 고즈넉한 공간부터, 명절 분위기를 물씬 나는 전통 놀이 한마당, 커다랗게 차오른 노란 보름달 아래 즐겨보는 야간 마실까지. 몸도 마음도 가볍게 떠나보는 익산 명절 나들이 장소를 소개한다.

웅안생태습지공원



웅포곰개나루

전통 놀이·체험프로그램 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

반려견까지 온 가족 함께 즐기는 놀이시설 등 준비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교도소 세트장

▲밤하늘 수놓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미륵사지 일원

익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미륵사지 일원에서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열리고 있다. 관람객들은 백제부터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져 온 미륵사지에 숨겨진 비밀을 화려한 미디어아트와 함께 탐험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시그니처 레이저 아트 쇼'를 비롯해 20여 개 신규 콘텐츠를 새로 선보인다. 유명 작가들과 협업으로 이뤄진 상상 사파리 야간경관, 먹거리 장터, 체험 프로그램 등도 마련된다. 이 기간 익산박물관은 야간 개장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미륵사지 석탑은 현존하는 동아시아 석탑 중 가장 크고 오래된 유산이다. 석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초기 형태를 잘 보이고 있고, 고대 건축 실제 사례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높아 국보로 지정돼 있다.

이런 백제역사유적지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639년의 백제와 2024년의 익산을 연결하고 있다. 연못 2곳에 설치된 미디어 폭포와 반딧불 정원 등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환상적인 빛의 세계는 관람객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밝게 차오른 보름달 아래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수준 높은 예술적 경험을 즐겨보자.

▲설레는 밤미실...해가 저도 아름다운 익산

선선한 밤공기와 함께 마실에 나설 기회도 있다. 추석 전날인 16일 오후 6시에는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더(THE) 달달한 밤' 행사가 열린다. 공연과 모래예술(샌드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다.

주말에는 익산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예약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별밤 익산 시티투어'는 익산 근대역사관에서 출발해 왕궁리 유적과 새롭게 단장한 웅포곰개나루 등을 방문한다. 전주에서 출발하는 '별밤 익산 여행'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열리고 있는 미륵사지를 거친다.

▲대표 관광지 즐기고 기념 선물까지

연휴 둘째 날인 15일과 마지막 날인 18일, 익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방문 인증 이벤트를 운영한다. 세계유산인 미륵사지를 비롯해 백제왕궁박물관, 보석박물관, 교도소 세트장, 만경강 문화관까지 5곳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지 인증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후, 이벤트 신청 화면(naver.me/5ssnDK60)을 해당 관광지에 있는 안내소에 보여주면, 익산시 관광캐릭터인 마룡이가 그려진 그림책을 선물로 받게 된다.

만경강문화관에서는 체험 활동으로 이뤄진 '열썬구 절썬구, 구월 추석이 왔다구'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15일, 16일, 18일 각각 진행되며 날짜별로 전통 무드름, 자개 거울, 전통 갓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 비석 치기와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도 준비돼 있다.

왕궁리 유적지에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연휴 내내 △소원조약돌 △소원쪽지 △미니소원등 △소원쪽간지기를 체험하는 '고백익산에서 소원을 말해봐'를 통해 백제왕궁박물관과 왕궁리 유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은 야외관광지로 상시 개방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정기 해설 시간을 잘 맞추면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이상한 교도소에서 문화·전통놀이 체험

연휴를 마무리하는 18일은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을 방문해 명절에 어울리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익산시 교도소세트장은 명절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공연과 전통 놀이를 마련했다.

'신나는 예술 버스' 공연팀이 오후 2~3시 버블쇼와 미술, 퓨전 국악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엄선해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 놀이 체험장에서는 투호와 제기차기, 윷놀이, 나무지게 메기 등을 즐길 수 있다.

교도소세트장은 지난해에만 16만5,300여명이 방문한 익산 대표 관광지다.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 이곳저곳을 체험하며 찍는 인증사진이 인기다. 교도소세트장 인근에는 함라한옥체험

마을과 성당면·웅안면 농촌체험마을이 있어 각종 체험과 숙박을 연계한 색다른 경험이 가능하다.

▲보석박물관에서 전시 보고, 다이노키즈월드에서 놀자

왕궁보석박물관은 추석 연휴 닷새간 쉬는 날 없이 운영된다. 온 가족이 모두 행복한 놀이체험시설 '다이노키즈월드'도 추석 연휴 운영을 이어간다. 실내 놀이체험시설의 경우 이용 가능 인원에 대한 50%를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받는다.

보석박물관에서는 영국 왕실 소장품과 방탄소년단(BTS) 공연 의상을 묶은 기획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전시품은 엘리자베스 2세 무도회 드레스, 엘리자베스 2세의 동생 마거릿 공주의 귀걸이, 앨버트 공 서거 후 남편을 추모하기 위해 착용한 빅토리아 여왕의 애도 모자와 장신구 등이다.

이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그룹 BTS가 그래미 어워즈 축하 무대에서 입었던 의상을 '다이노키즈월드' 특별관에 전시한다. 전시회는 무료로 행사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또 기획전시실 앞 마당에서는 윷놀이와 딱지치기, 제기차기, 세공시연, 장신구 착용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반려동물까지 함께해야 온 가족 완성... 웅안 바람개비길

알록달록한 바람개비가 가득한 웅안 성당포구는 금강에 폭 담기는 낙조가 한 폭의 수채화를 그린다. 이곳엔 가족들과 푸짐한 명절 식사를 즐긴 뒤 함께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걷기 좋은 산책로가 마련돼 있다.

반려동물만 집에 두고 나와 미안해질 필요도 없다. 웅안생태습지공원과 성당포구 바람개비길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눈치보지마시게 길'로 지정돼 있다. 포근한 낙엽이 깔린 산책로는 반려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놀이터다.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는 것도 좋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가득한 자전거도로 위로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바람개비 물결이 낭만의 춤을 추며 방문객을 반긴다. /익산=이재훈 기자

시민이 주인!
더 듣고 더 뛰는 실천의회
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